



## 어촌 어항법 제정에 바란다

“수산업 살릴 비장의 무기가 되길...”

**해**양수산부가 어항법을 발전시킨 어촌어항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항에 관해 아무런 단서도 없었던 불모지에 어항법이 제정된 지 40여년 만에 이 같은 발전적 변화를 지켜보고 있자니 새삼 감개가 무량해진다.

사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항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항이라 하면 그저 단순한 어선의 정박이라든가 수산물의 양륙 정도가 어항에 관한 개념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어항을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으며, 이것이 어촌 어항법 제정의 근본 이유가 되고 있다.

우선 어항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촌은 다양한 해양생태, 고유한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 많은 개발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이 없었다.

또한 수산업 여건의 악화로 낙후일로를 걷고 있는 어촌 지역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이 없었다.

다음으로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여가활동 확대로 어촌어항이 국민관광지화 되고 있지만 여기에 걸맞은 대처방안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미미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양륙이나 어선 정박 위주의 기능에서 한 차원 높은 어항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국형 어항 형태로의 변화가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등이 이번에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어촌 어항법 제정을 서두르게 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존 어항법의 전문을 개정하여 대체입법으로 살기 좋은 어촌 어항을 조성할 수 있는 어촌 어항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이들은 이미 관계법규의 정비와 함께 정부조직을 어항부에서 어항정비부로 개편하였으며, 전국어항협회의 명칭을 전국어항어장협회로 바

꾸었다. 이와같이 일본은 어촌 어항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어장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은 통합개념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어촌어항법은 비록 어장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어촌 어항 발전을 위한 구상을 머리에 떠올렸을 때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제정될 어촌어항법은 어촌 종합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거추장스러운 결가지는 모두 쳐버리고 명쾌한 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니 기대가 사뭇 클 수밖에 없다.

오는 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될 어촌어항법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한국어항협회 역시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 크게 그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장 협회의 명칭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회와 모든 어항인들은 이번 어촌 어항법 제정을 계기로 환골탈태의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 그대로 협회 명칭만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으로, 우리보다는 수산업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각오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처럼 맞이하는 수산업 발전의 호기를 상실할 가능성도 없지않음을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어항의 개념을 어촌으로까지 넓힌 그 저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협회의 역할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촌어항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어항인들의 단합된 힘을 기대해 본다.

